

〈혁명가의 안해〉와 〈변절자의 안해〉

- 두 작품의 관계와 의의 -

林 善 愛*

〈차 례〉

- | | |
|---------------------|-----------------|
| 1. 서 론 | 4.1. 아펠레이션 문제 |
| 2. 논쟁시대의 두 작가 | 4.2. 작품 속의 두 아내 |
| 3. 두 작품의 창작배경과 상관관계 | 4.3. 두 작품의 의의 |
| 4. 두 작품의 문제점과 그 의의 | 5. 결 론 |

1. 서 론

한국 문단사를 살펴볼 때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는 카프파들의 계급 문학론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본고에서 논의될 〈혁명가의 안해〉는 1930.1.1 ~ 2.4.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이광수의 단편이고, 〈변절자의 안해〉는 1935.5<<신계단>>에 발표되었던 이기영의 단편이다.

제목에서 두 작품의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듯이 〈변절자의 안해〉는 〈혁명가의 안해〉가 내포하는 몇가지 문제점¹⁾이 요인이 되어서 쓰여진 작품이다. 이 두 작품은 당대의 시대적인 상황, 문단에서의 쟁점, 작가들의 당대적인 입장 등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작품들 중에 속하는 작품이다.

이 글의 목적은 두 작품의 관계와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두 작품의 의의를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강사

1) 이기영, 「〈혁명가의 안해〉와 이광수」(신계단 1933.4.) 여기에서 이기영은 이광수의 작품이 전적으로 무산계급을 포함하기 위해서 소설의 주인공을 색광과 요부로 선택했다고 분개했다.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당대의 현실과 문단의 쟁점, 두 작가의 당대에서 처했던 입장 등을 고찰하고, 두 작품의 관계와 문제점을 분석해서 두 작품의 의의를 밝힐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작품의 텍스트는 이광수 전집(2)(삼중당, 1971.)와 <신계단>(1933.5.)으로 한다.

2. 논쟁시대의 두 작가

1924,5년경부터 1933,4년경까지의 약 10년간은 카프파의 계급문학론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던 시기였다.²⁾ 3.1운동이후 낭만주의, 자연주의적인 조류와 함께 1923년을 전후해서 신경향파를 중심으로 한 빈공문학이 생겨나서 1925년 카프가 결성되면서 더욱더 정치적인 목적성을 띤 프로문학이 형성되었다.

신경향파 시기의 문학은 단순한 빈공문학, 소박한 반항문학이었다고 한다면 카프이후의 프로문학은 반항의 혁명적인 근거를 명백히 제시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카프파는 '예술을 무기로하여 조선민족의 계급적 해방을 목적'³⁾으로하면서 《예술운동》이라는 잡지를 펴 내기도 한다.

카프파의 철저한 이론적인 무장으로 계급문학론이 전개되고 있을 때 기존문단의 작가들이 계급문학론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계급문학시비론」(개벽, 1925.2)의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이 토론에서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은 프로문학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고, 박종화는 계급이 있는 이상 계급 문학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프로 문학의 가능성을 승인했으며, 김기진, 박영희는 프로문학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양주동, 염상섭, 이광수 등은 프로 문학론에 대한 대타적인 개념을 가진 국민 문학론을 주장해서 프로 문학과 맞섰지만 그 논리적인 기반이 매우 약해서 대항할 수 없었다.

염상섭, 양주동, 조운, 김영진, 이병기 등이 「국민문학의 의의」(신

2) 백철, 이병기,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p.350참조.

3) 양봉산인, 조선프로예술운동소사,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개관, 정음사 1977, p.177에서 재인용)

민, 1928.3.)에서 ‘그 사상에 있어서나 그 형식에 있어서나 외래적인 것을 배척하고 조선적인 것을 수호’ 하는 국민문학론을 제창하면서 조선적인 것을 존중하고, 시조를 부활하고, 정음 반포일을 제정하려고 했으나, 조선적인 것은 이미 최남선·이광수가 주장했고, 정음 반포일도 1926년에 이미 제정되었다. 이것은 전통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문학운동의 일종일 뿐이었다.

이렇게 계급 문학론과 민족주의 문학론이 대립을 보이고 있을 때 양주동, 염상섭 등은 《문예공론》(1929)에서 민족을 떠난 계급이 없고, 계급을 떠난 민족이 있을 수 없다는 절충주의 문학론이 나왔다. 이것은 민족주의의 보수적인 면을 반성한 이론인 동시에 프로 문학의 계급주의와 타협을 허락한 중립적인 조화주의였으나 결국은 민족주의 문학론의 아류에 불과했다.

한편 아나키즘과 논쟁도 있었다. 카프의 조종곤은 예술은 중앙 집행위원회 명령에 의하여 창작하는 것이며 그 점에서는 선전 포스터도 예술이요 정당의 정견발표문도 예술로 될 자격이 있다고 한 견해에 대하여 김화산은 아나키즘의 입장에서 예술의 자유와 자발적인 것을 역설하여 반박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계급문학론은 자체 내의 논쟁과 대외적인 논쟁, 1차, 2차 검거등으로 인한 맹원들의 반성과 사상전향⁴⁾을 계기로 점점 쇠퇴해 갔다.

이광수와 이기영의 생애⁵⁾를 추적해보면 두 작가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었던 듯하다. 다만 이기영이 작품을 위한 준비기간 때 이광수의 〈무정〉, 〈개척자〉 등을 읽고 그의 계몽사상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기영의 일방적인 감정이었다. 당대의 문단에서 민족주의 문학론과 계급문학론의 시비가 있을 때도 이광수 자신은 계급 문학론에 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나 카프와 문인들 쪽에서는 민족문학 쪽에 팽창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기영도 그런 인물 중의 하나였다. 두 작가는 동시대를 살면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 글에서 논할 두 작품의 관계

4) KAPF에 대한 2차 검거가 있는 후 카프계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박영희가 전향론을 발표하면서 카프를 탈퇴하자 신유인, 백철도 탈퇴하고 김남천은 관념론으로 도피했으며 송영, 이기영, 한설야, 윤기정은 애매한 태도였다. (김윤식, 문학사와 비평, 일지사, 1975, p.146 참조)

5) 이광수의 생애는 구인환(이광수 소설연구, 삼영사, 1987), 박계주, 광광수(춘원이광수, 삼중당, 1962) 등의 논의를 참조했고, 이기영의 생애는 권영민(월북문인연구, 문학사상사, 1989), 권유(이기영소설연구, 태학사, 1993), 이기영선집(총13권, 풀빛, 1989) 등을 참조했다.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광수는 1892년 평북 정주에서, 이기영은 1895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했다. 이들은 비슷한 연대에 태어나서 구한말, 개화기, 일제식민시대, 8.15해방, 6.25동란의 역사적 과정을 함께 겪은 문인들이다. 이광수는 당대에서나 후세에서나 문학사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고, 이기영은 월북작가라는 핸디캡도 있었지만 카프파의 일원으로 계급문학을 논할 때만 떠오르는 작가이다.

이 두 작가는 불운했던 동시대를 살았으나 유년시절의 불우함, 신여성과의 재혼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이광수가 경험의 폭이 넓고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굴절이 있었다면, 이기영은 경험의 폭이 좁고 사상의 굴절도 거의 없었던 작가였다. 식민지 시대에 두 사람은 각각 민족주의와 계급주의 편에서 활동했고, 8.15해방이 되자 이광수는 친일파로 몰려서 민족의 정죄와 비난을 받았으나, 이기영은 자신의 이념 실현을 위해서 월북하고 말았다. 이광수는 6.25동란이 발발되던 해 1950년 7월 12일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생사를 알 길이 없는 반면, 이기영은 월북이후 사망시⁶⁾까지 조선문학예술 총동맹위원장으로 작품활동을 계속했고, 월북이후에 쓴 <두만강>은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실의 대응방식과 사상의 차이에서 오는 문학관 등의 차이로 해방이후 두 작가의 삶은 엄청난 거리를 가진다.

3. 두 작품의 창작배경과 상관관계

1930년대는 시대적으로 일제의 탄압이 본격화되어 가던 시기였고, 문단적으로 민족문학론은 이론의 부재로 허덕이고 있었으며, 계급문학론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 실제작품 창작 등의 문제로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수가 <혁명가의 안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발표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그것을 계기로 3년 뒤에 계급문학론자인 이기영에게 혹평을 받게된다. 이기영은 의도적으로 <변절자의 안해>

6) 긍정적 평가 - 백철, 조연현, 전광용, 정한숙, 김우중, 윤홍로, 구인환 등

7) 부정적 평가 - 김동인, 김동석, 김현 등

8) 이기영선집 뒤에 실린 작가 및 작품연보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라는 작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혁명가의 안해〉는 〈사랑의 다각형〉, 〈삼봉이네 집〉과 함께 〈군상〉 3부작 중 제 1부이다. 이광수는 대부분의 작품에서 창작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2년에 걸쳐 세번의 동기를 이야기한다. 이것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애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혼란⁹⁾을 주고 있다.

〈혁명가의 안해〉는 〈군상〉 중의 한 편이다. 〈군상〉은 그 글자와 같이 이것 저것을 그린다는 뜻이니 이래서 내가 본 1930년대의 조선의 횡단면을 그려 보자는 생각이다.

〈혁명가의 안해〉는 친구들 간에 모델문제로 아는 이도 있는 듯하나, 나는 언제든지 실직한 사람을 모델로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거니와 이 〈혁명가의 안해〉뿐만 아니라 〈군상〉 중에 쓴 다른이야기도 그러하다.

〈군상〉내작품 중에서 특별한 경향과 수법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경향과 수법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은 아직 말하지 아니한다. 〈군상〉이 아직 써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니와 또 모든 것을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뜻이다.¹⁰⁾

이 졸렬한 시대의 그림이 어느 정도까지 그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감정의 고민상을 그렸는지는 내가 말할 바가 아니다. 내 의도가 그것들의 충실한 묘사에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¹¹⁾

그 소설의 모델로 말하면 이미 세상이 잘 아는 이봉수씨를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씨를 모델로 하였는가라고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내가 씨를 가장 존경하고 애모한 까닭이었습니다. 이씨의 사상에 공명하여서 그랬다느니보다 그의 송죽과 같은 맑고 깨끗한 절개

9) 볼프강 카이저, 언어예술작품론(김윤섭 역), 대방출판사, 1982, p.349 참조.

N.프라이, 비평의 해부(임철규 역), 한길사, 1982, p.15 참조.

작가 자신의 작품해설이 완전한 해석일 수 없고 오히려 작품의 이해에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10) 〈혁명가의 안해〉서문, 전집(10), p.508.

11) 「여의 작가적 태도」, 《동광》, 1931.4. (전집(10), p.461.)

와 견고한 지조를 무한히 존경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로 말하면 그 때 병석에서 신음하는 이씨를 끝없이 학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운동을 물론하고 거기에는 고결한 절개와 지조-신뢰가 없이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일후에..... 투사의 아내와 같은..... 물인정한 행동이 없기를 바라는 데서..... 모델로 취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¹²⁾

첫번째 설명은 1930년대 조선의 횡단면을 상상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특별한 경향과 수법으로 썼다는 것이다. 1920년대 중반부터 지식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떠돌았던¹³⁾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혁명가가 1920년 말에서 1930년대 초가되던 절정을 이룬다. 이 작품이 당대에 유행했던 혁명가를 등장인물로 채택했다는것은 1930년대 조선의 횡단면을 그렸다고 할 수도 있고, 이광수의 일반적인 작품경향¹⁴⁾으로 봐서 특별한 경향인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기본 줄거리-남편 있는 아내의 연애 사건-는 혁명가가 등장인물로 되지않더라도 전개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의 어디에도 1930년대의 혁명가와 혁명가 아내의 활동상은 보이지 않는다. 결코 혁명가 아내의 연애 사건이 1930년대의 조선의 횡단면이 될 수 없으며 등장인물을 혁명가로 설정했다고해서 특별한 경향이 될 수가 없다.

이 작품의 시작은 1930년 1월 이었는데, 1930년대는 시기적으로 작품의 검열이 강화¹⁵⁾되던 때이기도 했고 민족문학론이 이론의 부족으로 인해 당황하고 있을 때였다. <혁명가의 안해>라는 제목으로 작품의 검열에 걸리지 않고 발표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작품의 내용에 혁명가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일제의 검열에는 내용의 통속성으로 통과되고, 계급문학론 쪽에는 제목이 지니는 혁명성으로 회유하려고 했던 이광수의 모호한 처세술을 엿볼 수 있다.

두번째의 설명에서 작가는 그 당시의 이데올로기가 감정의 고민상을 충실히 묘사한 작품이라고 하지만 이 작품에서 이데올로기 문제는 거의 취급

12) 「혁명가의 안해와 모델」,《신여성》,1932.4.(전집(10),p.509.)

13) 이철악, 조선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방향 전환기의 이론적 과오와 그 비판, <<계급투쟁>>, 제3호, 1930.1.6. (배성찬 편역, 식민지시대 사회운동론 연구, 돌베개, 1987.p.182에서 재인용)

14) 통속적인 연애소설, 계몽주의 소설.

15) 배성찬 편역, 위의 책,p.85 참조.

되지 않고 혁명가의 아내인 정희인 신정조판에 관한 갈등만 주로 서술 될 뿐이다. 작가의 말처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묘사를 충실히 했다면 이 작품은 프로문학의 일종이라야 할 것이고 일제의 검열로 발표의 여부가 문제시 되어야 할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되었다. 이것은 작가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세번째의 설명을 보면 작가는 첫번째의 설명에서 상상의 인물이라고했던 것이 실존의 인물로 바뀌고 있는 반면 첫번째 두번째에서 이야기 했던 당대의 현실적인 문제를 취급했다고하는 리얼리즘의 입장을 뒤엎고 이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교훈성을 중시하고 있다. 이광수는 1921년 상해로부터 입국하면서 ‘변절자’라는 오해를 받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적이 되기도 한 인물이다. 그는 해방 후에 친일파라는 죄목으로 재판받을 당시 ‘민족을 위해서 친일했다’는 모순되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는데 이 작품의 창작배경을 설명하는 데에도 세번씩이나 논리가 바뀌고 있다. 이것은 작가의 작품에대한 애착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시세의 흐름을 잘 타는 우유부단한 작가의 성격 때문으로 파악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기영은 이광수의 약삭빠른 현실 대응의 자세와 〈혁명가의 아해〉에 나타난 병든 혁명가, 음탕한 혁명가의 아내상등 이 작품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전부터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제목이 작가 춘원에게 잊어서는 엉뚱하다할만치 색다른 새문이었다 …….

필자는 읽든 중 몇번이나 책을 내던지고 십흔 것을 억지로 참어가며 읽었다. 참으로 구토할만한 추작인데는 누구나 놀내지안을 수 업겠다.……그 중에도 더욱 작자(이광수:필자 주의 심사가 가중한 것은 의식적으로 무산계급의 권위세 마하기위해서 일부러 이 소설의 주인공을 색광과 요부를 만드렸다는 것이다. …… 쥐는 쥐인 척하는 것이 오히려 제 격에 드러맞는 법이다. 작가는 여실하게 뿌르조아 연애소설이나 쓰든지 그러치 안으면 그들의 비위에 맞는 강담소설이나 쓸 것이지 아예 이와가튼 무모한 경거망동의만용은 부릴 것이 아니다.¹⁶⁾

16) 이기영, 「혁명가의 안해」와 「이광수」,《신계단》 1933, 4.

이기영은 1개월 후인 1933년 5월에 〈변절자의 안해〉라는 제목으로 이광수와 그의 아내를 풍자해서 작품을 발표하게 된다. 이 작품의 후반부는 검게 채되지 않고 있으나 전반부만으로도 그의 창작의도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이기영은 〈변절자의 안해〉를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작품의 내용으로 볼 때 〈혁명가의 안해〉를 발표했던 이광수에 대한 증오심에서 이광수의 변절행위와 그 변절의 원인이 된 인물인 그 아내의 변절적인 행위를 폭로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한 이광수의 평은 없었다. 이것은 두 문학론의 대립에서 나온 작품이며 프로문학측의 호전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다.

4. 두 작품의 문제점과 그 의의

〈혁명가의 안해〉는 병든 혁명가 아내의 연애담을, 〈변절자의 안해〉는 민족주의자를 변절시킨 요염한 아내를 등장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두 작품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등장인물의 이름과 작품과의 관계, 작품 속에 나타난 아내상을 분석함으로써 작품의 의의를 밝히기로 한다.

4.1. 아펠레이션 문제

아펠레이션은 작중인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¹⁷⁾으로 작중인물의 개성을 부여하는 작업¹⁸⁾이라고 할 수 있다. 〈혁명가의 안해〉에서 혁명가의 본명은 '공진호(孔鎭浩)'이며 가명은 '공산(孔産)'이다. 작가는 '공진호' 보다는 '공산'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의 전체를 끌어 나간다. '공산'이 공산주의 혁명가라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孔産'과 '共產'은 동음이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기영은 '孔産'을 축자적으로 해석하면 '구멍을 뚫는다'라는 의미이고 구멍은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다. '孔'은 즉 'O'이라고

17) 정한숙, 소설기술론, 고려대출판부, 1982, p.102.

18) Rene Welle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 1966. The simplest form of characterization is naming, p.219.

하면서 '0'은 아무리 낱아도(産) '0' 밖에는 낳지 못하므로 결국 공산주의자는 '허사만을 쫓는 자'라는 공식을 밝혀내고는 이 작품은 공산주의 혁명가를 모함하는 작품으로 결론¹⁹⁾짓는다. 사실 독자가 작품을 처음대할 때 제목과 주인공의 이름 등을 보고 작품의 전체를 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예외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孔産'의 혁명가적인 행동보다는 자리에 누워있는 폐병환자로서의 모습이 작품의 주를 이루고 있다.

공산이 병으로 누운지는 벌써 일년이 넘었다. 그의 병은 폐결핵이다. 이러한 사람도 병을 앓는가 할이만큼 단단하게 생긴 사람이언마는 여러해 동안 불규칙하고 심신 과호한 생활을 한 결과로 처음에 감기같던 병이 마침내 폐병으로 판명되고 만 것이다.²⁰⁾

아펠레이션이 독자의 습관과 작중인물의 이름의 인상을 부합시켜서 그 성격을 더욱 생생하게 하는 것²¹⁾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에서의 아펠레이션은 문제가 된다.

〈변절자의 안해〉에 있어서 남자 주인공의 이름은 '민족(民足)'인데 이기영은 이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세상에서는 지금 그의 일흔을 민족(民足)이라고 부른다.

그를 왜 「민족」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은 나도 잘 모른다. ...한데 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는 그의 총명한 두뇌로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일부터 그런 별명을 부친 것이나 안인가 심호다. ...그야 하여간 그가 유명한 민족지량주의자라는 것만은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면 그의 그런 별명 쫘미야 아모릿든지 미주알 고주알 켤 필요가 업슬줄 안다.²²⁾

'民足'에 대해서 '民'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足'은 백성의 발이 되고 싶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이름

19) 이기영, 위의 글 참조.

20) 이광수 전집②.p. 465

21) 정한숙, 위의 책.p.102 참조.

22) 이기영,〈변절자의 안해〉.

이라고 서술자는 설명한다. 이 작품의 내용은 '民足'이의 변절 행위에 대해서 폭로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이광수가 <혁명가의 안해>에서 사이비 혁명가를 등장시켜서 진정한 혁명가의 이미지를 해쳤다는 피해 의식에서 출발된 작품으로 이기영은 소위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인물의 변절 행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 폭로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변절'이의 변절 행위보다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의 변절 행위를 폭로함으로써 민족을 배신한 변절행위의 농도는 더욱 짙게 드러나고 있다.

아내의 이름도 혁명가의 아내는 '방정희'인데 반해 변절자 아내의 이름은 '함희정'이다. '정희와 희정'은 각각의 이름자를 거꾸로 배치함으로써 이광수 작품에 대한 이기영의 반감의 표시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아펠레이션 문제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4.2. 작품 속의 두 아내

두 작품에서의 주인공은 아내들이다. <혁명가의 안해>의 주인공 방정희(공산의 아내)는 모 여자고보를 졸업한 신여성으로 학비 보조를 해 준 강의사와 연애를 하다가 삼방 약수터에서 공산을 만나고 그의 혁명가적인 인물에 반해서 공산과 연애하고 그녀도 여류 혁명가가 되어 공산과 함께 살게 된다.(공산은 구식 부인을 버리게 된다) 그런데 공산의 지병인 폐결핵이 점점 심해져서 자리에 누운지 1년 동안 성적으로 주린 그녀는 공산을 치료해 주러 오는 권오성이라는 의전학생과 정을 통하고 공산이 죽고 며칠 후 권오성과 같이 온천장으로 밀행을 간다. 거기서 정희는 자기의 임신 사실을 알고 권오성에게 양탈을 부리다가 권오성의 발길에 차여 하혈하고 유산까지 하였다. 정희는 권오성이 약을 구하러 간다고 해 놓고는 오지 않자 공산의 친구인 '여'에게 자신의 위급함을 알린다. 서울로 실려온 정희는 '이번에 일어나면 공의 뒤를 이어 혁명가가 되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어 버린다. 그러자 동지들은 정희가 남편 공진호를 간호하노라고 몸이 피로하여서 죽은 것이라 하여, 또 여자동지로서 가장 투쟁원리에, 이론과 실행에 용감한 여성이라 하여 공에게 한 것과 같은 당장으로써 정희를 공의 곁에 묻었다고 한다. 이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정희는 혁명가의

투병생활을 도와 준것도 아니고 어서 죽으라고 구박한 인물이다.

「여보」

하고 그의 아내 방정희는 바늘 끝같은 소리로 남편을 어른다.

「대관절 언제까지나 요모양으로 얹전하게 누워만 있을 작정이요? 벌써 일년야 일년. 예그 지긋지긋하구료, 죽든지 살든지 끝장을 내시구료. 살긴 무얼 살아. 저 꼴이 되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 예그, 지긋지긋해. 이젠 다 뭐야?」하고 발길에 채우는 약병을 한번 더 힘껏 차서 담벼락에 부딪친다.…… 그에게는 조선 여성에서는 드물게 보는 표독함이 있다. 23)

작품의 어디에서도 정희의 혁명투쟁을 위해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강한 성욕만 보일 뿐이다.

공산의 생명을 파먹는 무서운 병이 구더기 모양으로 자기 몸으로 기어들어 오는 것 같아서 정희는 누운 채로 두어 뺨 남편에게서 물러나왔다. 건넌 방에는 권서방(정희는 권을 권서방이라고 생각으로 부른다)이 누워있다. …(홍. 정조, 의리, 남편을 섬김, 홍 봉건사상, 노예도덕 … 홍.)…(그런 모든 인습적 우상에서 노예의 질곡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 혁명이다!)하고 정희는 혁명가다운 용기를 발하여 벌떡 일어난다. 일어난 것은 건넌방으로 가자는 것이다. 24)

이런 류의 삼각 관계의 사건은 혁명가들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통속소설의 흔한 모티브이기도 하다.

〈변절자의 안해〉에서 아내 함희정은 잘 먹고 잘 입고 제멋대로 싸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양장미인인 신여성이다. 함희정은 동경 유학시절 민족이와 만나서 자유연애를 하고, 함희정의 뜨거운 사랑은 한때는 독립운동가로 이름난 민족이를 변절시킨다.

23) 이광수, 〈혁명가의 안해〉.

24) 이광수, 〈혁명가의 안해〉

이집 양장아씨 함희정씨는 일찍이 이집주인 민족선생이 동경류학을 할 때부터 시체말로 「련애」를 속속드리 했다한다.

아들까지 나코 아모죄도 업는 전설 안해를 친정으로 쏘쳐버렸다한다. 그것은 말쑥갓튼 쪽을써고 봉건적 구도덕에 쏘 이성을 쓰러 다리는 진암찰갓튼 마력이 잇는 근대적의 신여성인 함희정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붉은 키-쓰를 보낼때 그의 소썩르적 자유사상과 부합했든 것이다.

그래서 자유련애의 고비를 넘어서 련애지상주의에 싸지 막다른 그는 비록 변절은 할지언정 이 「경국지색」을 배반할 수는 업섯다. 그래서 그는 마치 색기에 맨 돌맹이처럼 해외에서 슬녀드러왔다.²⁵⁾

이 이후 민족이는 사상의 전환을 보여서 ‘온건 착실한 민족 개량.개조.실력 양성’을 역설하게 되고 구식 부인도 버리게 된다. 그들은 서울 한 복판에다 문화주택을 짓고 ‘스위트 홈(이상적 가정)’을 만들어서 버젓이 살아 가고 있다.

이 작품에 묘사된 ‘민족’의 아내인 ‘함희정’은 ‘민족’이를 변절시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민족주의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안락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자인 함희정은 민족이를 부추겨서 시세에 야합하게 해서 시대의 고난을 겪어지지 않게 하려는 인물이고,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함희정을 조선의 천재이자 민족주의자를 변절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두 아내는 모두 신여성으로 남편으로 하여금 구식 부인을 버리게 하기도 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아내가 아닌 남편의 일을 그르치는 여인들로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1930년대라는 특수한 시대 속에서 안일하게 안주하는 당대 신여성들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4.3. 두 작품의 의의

위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광수는 당시의 시세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25) 이기영, 〈변절자의 안해〉.

〈혁명가의 안해〉를 창작했고, 이기영은 이광수의 작품에 나타난 혁명가와 혁명가의 아내상에 대한 불만으로 〈변절자의 안해〉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광수는 〈혁명가의 안해〉에서 당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혁명가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은 일제의 탄압으로 인한 검열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시세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잘 동조되는 이광수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변절자의 안해〉는 민족주의자의 변절 행위를 폭로한 작품으로 작가의 과도한 감정 과잉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것은 혁명투쟁적인 사상을 가진 이기영의 과격한 성격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민족주의와 계급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시기에 1930년대에는 진정한 혁명가도 없고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당대의 민족주의와 계급주의 대립을 첨예하게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5. 결 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보면 이광수의 〈혁명가의 안해〉는《동아일보》1930.1.1.~2.4.까지 연재되었던 작품이고, 이기영의 〈변절자의 안해〉는 1935.5.《신계단》에 발표되었던 작품이다. 두 작품은 「민족문학론」과 「계급문학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에 발표되었던 것들로, 1930년에 이광수가 〈혁명가의 안해〉를 발표하자, 3년후인 1933년 4월에 이기영이 〈혁명가의 안해〉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그 한달후인 1933년 5월에 〈변절자의 안해〉를 발표했다. 이것은 당대의 KAPF 파들의 공격적인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작품의 아펠레이션 문제에 있어서 〈혁명가의 안해〉에 나오는 ‘공산’과 ‘정희’는 작품의 제목이 가지는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 인물로서, 이 작품의 아펠레이션 선정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변절자의 안해〉에서는 제목이 주는 이미지와 작중인물들이 펼쳐나가는 사건이 합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아펠레이션의 설정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작품의 주인공인 ‘아내’들은 다 신여성으로 남편의 일을 도와주는 인물로가 아니라 남편의 일을 그르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1930년대에 외형을 쫓는 신여성들의 일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 작품들은 1930년대에는 진정한 혁명가도 없고 진정한 민족주의자도 없음을 보여주고 것들로서 당대의 민족주의와 계급주의의 대립을 첨예하게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본고에서 간과된 점은 원고를 달리해서 논하기로 한다.

참 고 문 헌

〈자료편〉

이광수 전집(1-10), 삼중당, 1971.

이기영 선집(1-13), 풀빛, 1989.

개벽, 동광, 신계단, 신여성 등 1920, 30년대 잡지.

〈논저편〉

구인환, 이광수 소설 연구, 삼영사, 1983.

권영민 편, 월북 문인 연구, 문학사상사, 1989.

——, 한국 근대 문인 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0.

——, 한국 현대 문학 비평사, 단국대출판부, 1982.

권 유, 이기영 소설 연구, 태학사, 1993.

김시대, 식민지 시대 비평 문학, 이우출판사, 1982.

——, 한국 프로문학 비평 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김우종, 이광수의 계몽 의식, 새문사, 1981.

김윤식,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 일지사, 1976.

——, 문학사와 비평, 일지사, 1975.

——, 이광수와 그 시대, 한길사, 1986.

——, “고향에서 두만강까지”, 동서문학, 1988.8-10.

김재용, 민족 문학의 이론, 한길사, 1990.

박계주·곽학송, 춘원 이광수, 삼중당, 1962.

배성찬 편, 식민지 시대 사회 운동론 연구, 돌베개, 1987.

- 백철 · 이병기, 국문학 전사, 신구문화사, 1973.
조진기, 이광수 소설과 민족 지도자상, 학문사, 1984.
이재선, 한국 현대 소설사, 홍성사, 1979.
이희춘, “춘원 소설의 정신 분석적 연구”, 한국문학론집(12), 계명대, 1985.
임규찬, 일본 프로 문학과 한국 문학, 연구사, 1988.
임종국, 친일 문학론, 평화출판사, 1963.
정영진, 통한의 실종 문인, 문이당, 1989.
조연현, 한국 현대 문학사 개관, 정음사, 1977.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 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부우스, 웨인 C., 소설의 수사학, (최상규 역), 새문사, 1985.
프라이, N., 비평의 해부, (임철규 역), 한길사, 1982.
Wellek, Rene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Penguin Book, 1966.
루카치, G.,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82.
골드만, 루시앵, 소설사 회학을 위하여, (조경숙 역), 청하, 1982.
카이저, 볼프강, 언어 예술 작품론, (김윤섭 역), 대방출판사.